

“누구나 보는 불교영화로...”



영화 '성철' 제작 안국선 사장

“촬영 50% 마쳐...4월 개봉 베를린·칸영화제등 출품”

“불자로서 불교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인연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제 처녀작이라 더욱 실례고 기쁩니다. 현재 '성철'의 촬영은 50%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누구나 보고 감동할 훌륭한 불교영화로 만들겠습니다.”

4월25일 개봉할 '성철'의 제작사 월드 시네텍의 안국선사장(42)은 이번 '성철' 제작으로 더 깊은 불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촬영현장에 갈 때마다 108배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촬영시간만도 3시간인 '성철'은 올해 베니스 영화제와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명망과 권위를 자랑하는 베를린 영화제와 칸영화제에도 출품 계획이다.

“사실 감독이 작품성을 주로 보겠지만 제작자는 당연히 흥행성을 보고 무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제 출품은 중요한 흥행요소가 되지요. 앞서 성철스님을 담은 영화를 기획했던 분들도 봐 있었지만 모두 제작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중도하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25억원으로 책정했는데 IMF 환율이 여기까지 미치더군요. 최대한 제작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삭감은 피해야죠.”

월드 시네텍은 '성철' 영화 제작을 위해 97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3~4편의 영화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사장은 “앞으로도 또다시 좋은 소재가 있으면 불교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집지는 않겠지만 영화 '성철'이 성공한다면 충분히 이어질만한 분야 아니겠습니까”며 의욕을 보인다.

김지연 기자

신행수기 당선작

(본사 사장상)

어머니, 불교를

다시 믿읍시다 ①

‘인

생이란 무엇인가?’ 한 생각 둘러

놓고 보니 이토록 세상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가난한 집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외도를 일삼았고 사업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온 가족을 고생시켰다.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외할머니께 맡겨 놓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다.

가장형편이 그렇다보니 나는 항상 부모님 사랑이 그리웠고, 자연히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그런 나를 포근히 감싸주셨다. 언제나 인자하신 모습을 잃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나는 할머니의 미소가 절여서 본 부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릴 적엔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아마도 절에 가 있어먹는 때이며 과자, 흰쌀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할머니는 35세에 불교와 인연을 맺어 노환(93세)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언제나 양보와 미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셨던 분이시다. 항상 부처님께 잘 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자식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생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덕분에 나는 성장해서도 심정적 불자로나마 있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나는 두말없이

외항선원과 결혼

빈틈없는 시어머니

고부갈등 깊어가고...

할머니 말씀을 따랐고, 첫 선을 본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했다. 할머니의 눈은 정확하셨다. 남편은 정말 나위없이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종교 또한 같이 만족스러웠다.

남편이 외항선 선원이었던 탓에 신혼초부터 남편과 떨어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서 어렵게 살아 오신 분이었다. 그 당시 시어머니는 외손녀(시누이의 딸)를 키우고 계셨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시집 와 시어머니와 한집에서 살아야 했던 나는 5살난 조카 아이가 오히려 시며서먹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오였다.

어머니의 성격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해를 보고 달이라고 해도 며느리인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주길 바라셨다. 어머니는 명령하시고 나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 이길 원하셨던 것이다.

또 시어머니는 구두쇠라는 말을 들을 만큼 모을 줄만 알고 결코 쓰지 않는 생활을 하셨다. 시어머니로서는 청결한 며느리를 잘 가르쳐 내 집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갖 시집 온 내에게는 지겨운 잔소리요, 간섭이로만 느껴졌고, 마침내 고부간의 갈등이 커져갔다.

생활비와 용돈을 미리 주지 않아 끼니 때마다 두부 한모양, 콩나물값을 타 써야 했고, 아

이거 생각하고도 연탄값을 아껴야 한다는 명목아래 7년이라는 세월을, 각자의 방을 두고도 어머니, 조카와 함께 한 방을 써야 했다. 그렇다고 불편함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오해만 커져 갈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며 나를 불편하게 하시던 어머니도 건강할 편은 아니어서 겨울이면 천식때문에 길고 긴 기침으로 괴로워 하셨고, 내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집안일 힘든 일은 어머니가 도맡아 하셨고, 잠시도 쉴 틈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셨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지도 모른다. 나는 몸집도 작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솜씨도 형편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림·이준석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늘 어머니께 꾸중듣기 일쑤였고, 그럴수록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었다.

1년에 한번씩 귀국하는 남편이 결국 고부간의 갈등을 눈치채게 되었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했다. 남편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사를 해 보려고 애썼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그렇게 7년동안 마음 고생을 하다 문을 연 것이 세탁소였다. 처음엔 세탁소 운영 또한 미숙하기 그지없고 어려웠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 가면서 수입도 괜찮아졌다.

세탁소 운영이 원활해지면서 경제권도 가지게 되었고 결혼 후 출금 떨어져 살았던 남편과 아침 저녁밥을 함께 먹으며 살게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할 대로 불편해져 계셨다. 두부 한모양까지 일일이 챙겨 주시던 어머니로서는 경제권이 물씬이고 아들마저 빼앗긴 것처럼 여기셨다. 갑작스런 변화에 상심이 크실까봐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고 세세한 일까지 신경쓰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 탓인지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던 남편은 계속되는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짜증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박윤희 (부산시 영도구 대명동1기)

BBS·btn 봄개편 'IMF式'

“제작비 줄이고 방송질은 강화하자”

불교방송과 불교TV가 봄을 맞아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 불교방송은 9일자로 '안녕하십니까 흥송 기입니다' '소리여행' '음악세상' '사찰순례' '라디오 특경'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등 소폭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백팔가요'는 '김홍국의 가요쇼'로 이름과 포맷을 보완해 새 모습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한국선사장

홍교기교수

최봉수교수

등과 현재의 포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청취자들에게 전달한다.

△ '소리여행' (월~일, 24:00) = 매일 10분동안 지나간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한 다양하고 정겨운 소리들을 담아 각박한 현대생활의 활력을 만든다.

으로 했다.

◆ 불교부신방송: 'BBS 생활상담실' (월~토, 11:10)을 신설하고 '피안을 향하여' (월~일) 3시의 가요회합곡 '일요법문' 등의 포맷과 구성을 변경했다. 특히 동명불인의 제작협찬을 받는 '일요법문'은 주지 장산스님의 법문을 전달한다.

◆ 불교광주방송: '행복한 노래마을' (월~일, 16:10)을 신설하고 뉴스를 대폭확대해 하루 4번 호남권 뉴스를 방송한다. '빛을 자넨'은 시사 생활정보에 중점을 두고 1·2부를 합쳤으며 '오늘의 법문' '일요경전강좌' 등은 시간대와 이름을 변경했다.

◆ 불교대구방송: '5분 명상' 'BBS 생활상담실' '오늘의 지방소식' '오늘의 영남불교' '살며 생각하며' 등을 신설하고 '불국토의 아침' '시사매거진' 등은 폐지했다. ◆ 불교청주방송: '살며 생각하며'를 자체 제작하며 '오후교계뉴스' (월~일, 16:35)를 신설했다. '우당산 전망대'는 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포교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다듬었다.

불교TV

불교TV는 불교교육 프로그램, 법회, 종단 사찰소개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등 "가장 불교적인 방송"을 목적으로 16일부터 봄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불교음악의 세계' (토, 09:10), '종단순례' (토, 10:15), '암도스님의 기초교리강좌' (월~토, 10:45) 등 3편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TV법회'는 주1회에서 3회로 확대해 화(11:05)·금(09:10)·일(09:40)에 방송된다. '남마다 좋은날' '구도드라마' '특선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은 시간대가 축소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자비의 천수천안' 등은 폐지된다.

BBS 임금협상 결렬

상여금전액·급여10% 삭감안

상여금 전액과 급여의 10%삭감을 두고 벌인 불교방송(사장 상너송) 노사협상이 결렬됐다.

1월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가진 노사협상은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신장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회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분적인 급여 삭감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회사측이 1월 상여금을 아무런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부 간부직원은 임금의 일부를 삭감한채 지급했다고 밝히고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불교방송

△ '안녕하십니까 흥송 기입니다' 1·2부 (월~토, 07:10) = 경제전문가 흥송기박사와 함께 경제칼럼·짜투리경제학부터다·철학시대의

BBS 라디오 특경 등 5개프로 신설

불교TV 암도스님 강좌·TV법회 확대 눈길

건강비결·돈안드는 문화생활정보·자동차정보·교통/기상정보 등으로 꾸며진다.

△ '김홍국의 가요쇼 1·2부' (월~일, 12:25) = '전화연결' '애기애 불까요' 등 청취자와 호흡하는 크너를 마련하고 마음의 등불이 되어 줄 경전의 가르침도 접할 수 있게 된다.

△ '음악세상' (월~일, 21:05) = 음악을 통해 생활에 지친 어분들과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마음의 쉼터를 제공한다.

△ '사찰순례' (일, 08:25) = 한국의 고찰·전통사찰 등을 심층 취재해 그 역사적 배경 전설 보물문화재

△ '라디오 특경' (일, 07:05) =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주옥같은 경전들을 독경하며 편안함과 청정한 기운을 얻고, 성인이 가르치는 맑은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체득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불교방송 4개 지방국역역시 9일 일제히 개편을 단행했다. IMF의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광고시장의 침체와 제반 제작환경의 악화에 따른 비용축소형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유자원의 총체적 활용, 제작비 사용의 최소화, 방송 효율의 극대화 등을 원칙

특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역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 요법

· 제조원: 이명무 오로테스트 연구회
· 판매원: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 주 문: ☎ 223-0491~2
☎ 249-8751

◆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무력증, 만성피로, 원인불명간질, 중풍, 언어장애, 난청이명, 불면증, 불안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평형성년, 기타 우환과 역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명당자리 요법이란?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찜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이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 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 조상을 권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 명당컵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냄창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기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나 수 있다.
② 명당컵에 물을 담은후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찜질 및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①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같은 노력을 해도 실패한 가톨릭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리 기요법을 보급하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입니다.

- 불행에도 투자액의 백배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무지에 대한 위협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명당자리 기요법 세미나 안내

100%조상 천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 1998년 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대화동 '태화사' 불교회관
- 동참회비: 무료
- 참가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전화 신청바람.

(052) 223-0491~2 (동암스님)